

DECO JOURNAL

테코저널



SPACE Plus

Shop Interior by
Yoichi Yamamoto Architects

Design Story

A Flip Flop Story

Deco Item

OUTDOOR CHAIR



Since 1995 Vol.193
www.decojournal.co.kr



Brunner – Fair Stand Salone Milan 2011



2011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 선보여진 가구회사 Brunner의 전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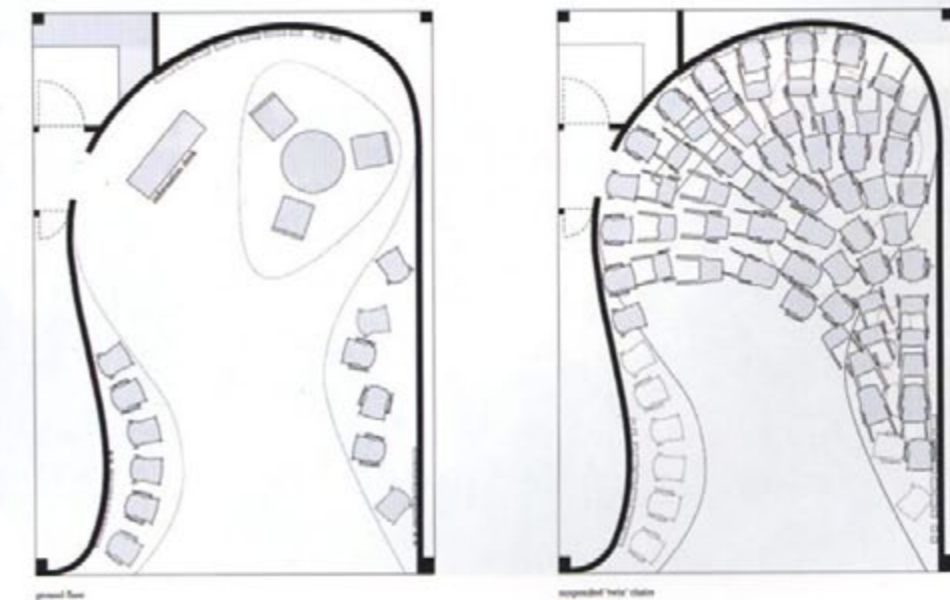
Ippolito Fleitz Group이 디자인한 가구회사 Brunner의 2011 밀라노국제가구박람회(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2011) 전시공간에서는 가구가 더 이상 공간을 채우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아이템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한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하나의 예술적 장치이자, 길드는 엑스트라가 아닌 공간의 강렬한 주인공으로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에디터 김민영 desk@decojourn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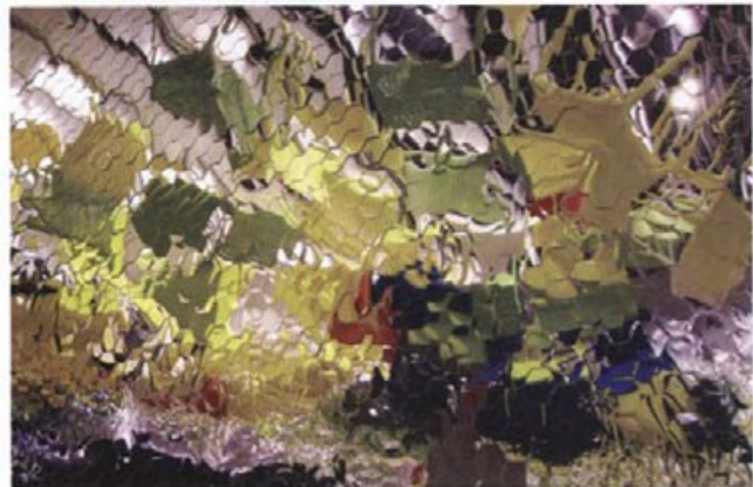
사진 Thomas Libis / Brunner GmbH, Zooey Braun / Ippolito Fleitz Group 위치 Milan, Italy

자료제공 Ippolito Fleitz Group(www.ifgroup.org)

세계적인 가구회사 Brunner가 2011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신제품 모노블럭(일체구조) 플라스틱 의자 twin을 전시하는 특별한 공간을 선보였다. 독일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Ippolito Fleitz Group이 디자인한 이 공간은 전시장 중심부에서 집중조명을 받기에 충분히 강렬하고 매력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바닥에 놓여 있어야만 안정감이 제대로 발휘되는 의자라 할 수 있을까. 눈높이의 위치로 올라가 있어도, 머리 주위를 구름처럼 감싸듯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낯설고 불안한 느낌 보다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감흥에 휩싸이게 된다. 자유롭게 설치된 플라스틱 소재가 주는 가벼움과 선명한 컬러가 전달하는 강렬한 아름다움은 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주듯 설치된 의자들은 마치 거울 같은 폴리시틸렌 판으로 연출된 벽에 반사되어 독특한 빛깔을 흡수하고 내뿜는다. 특히 거울의 파노라마 효과는 공간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며, 별 집 구조의 형태는 사물의 반영을 자유롭게 해체시킨다. 신제품을 소개하는 전시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여운이 오래 남는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



(Floor Plan)



1. 가구박람회 자리한 전시부스 자체가 하나의 아트 작품이 되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 2, 3, 4. 범집형태의 폴리실린 편으로 시공된 벽은 거울 같이 사물과 빛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반사한다. 선명한 컬러의 의자들의 자유로운 연출이 벽에 반사되어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더한다.
5. Brunner의 신제품 트윈 의자는 플라스틱 소재의 모노블럭 형태로, 가볍고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